

사회

10세 미만 어린이 비율 높은 광산구

영·유아 전용 응급체계 절실

소아 전문의 24시간 진료 한곳도 없어...구청도 무관심

영·유아 환자들이 가장 많은 광주 시 광산구에 '소아 전용 응급실' 설치 가 시급하다. 보건복지부는 소아 응급실 설치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구청은 뒷전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광산구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신창지구를 비롯해 수완지구 등 최근 조성된 신도시에 30~40대 젊은 세대의 거주가 크게 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광산구의 영·유아를 비롯한 10세 미만 소아 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5만 7000여명에 이른다. 지역 영·유아의 부모는 자녀가 응급 상황에 처할 경우 광산지역 내 병원을 찾고 있지만 소아과 전문의가 24시간 근무중인 병원이 없어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김영아(여·38)씨는 "광산구에 소아과 전문의가 십여에 근무중인 병원

설립 예정이다. 하지만 광산구는 소아 자녀를 둔 보호자들의 민원을 관련 담당자부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등 '소아 전용 응급실'의 필요성마저 느끼지 못해 비난을 사고 있다. 광산구 예방의약계 담당자는 "지역에 아동병원이 3개나 있으며 지역 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이 타 자치구보다 많이 있어 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3년째 시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자체도 현재까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서경아(여·33·광산구 신창동)씨는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 '소아 전용 응급실' 설치 가 절실하다"며 "타 자치구는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유치 경쟁이 치열한데 구청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 큰 문제"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주말 휴일 구름 많고 무더위

내륙 한때 소나기

주말과 휴일 구름이 많이 끼고 일사 현상이 더해지면서 더위가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은 16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고 낮 기온은 25~28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휴일인 17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조금 끼면서 26~2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 특히 16~17일 내륙지방에서는 오

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겠다. 기상청은 최근 잦은 소나기의 원인이 지속적인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 동안 일사에 의해 기온이 크게 오르는 가운데, 상층에서는 주기적으로 영하 15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하하는 과정에서 충돌하면서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세계박람회 개최중인 여수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25~26도의 기온 분포로 관람에 적당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오늘 날씨. 광주, 목포, 여수, 완도, 구례, 강진, 남해, 장흥, 순천, 영광, 진도, 군산, 남원, 옥산. 기상청 날씨예보. 광주: 20/29°C, 목포: 19/27°C, 여수: 19/23°C, 완도: 20/29°C, 구례: 19/25°C, 강진: 18/29°C, 남해: 19/26°C, 장흥: 19/26°C, 순천: 19/27°C, 영광: 19/28°C, 진도: 19/25°C, 군산: 19/28°C, 남원: 18/29°C, 옥산: 19/24°C. (오전) 바다, (오후) 바다, 주간날씨.

완도 소안도서 신종 해마 2종 발견

환경부 국립공립관리공단은 지난 4월 초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어류현황 조사를 하던 중 완도군 소안도 일대에서 신종 해마 2종(사진)을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신종해마는 크기 5~10cm 정도로 공단은 이들을 가장 '소안해마'와 '소안깃털해마'로 이름 지었다. 공단은 기존의 해마는 머리 위 왕관모양 돌기가 직각형태로 위

를 향해 솟아 있지만 '소안해마'는 40~60도 정도 뒤를 향해 있고, '소안깃털해마'는 70~80도로 뒤를 향해 발달했다고 소개했다. 또 '소안해마'는 몸 측면에 빨간 반점이 있고, '소안깃털해마'는 꼬리 부분에 6~7개 흰 반점이 있다. /연남뉴스



장애인들의 솜씨 자랑. 14일 광주시 북구 한국폴리텍V대학에서 열린 '2012 광주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화훼장식부문 참가 선수들이 경연을 펼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전자기, 컴퓨터 활용능력, 목공예, 제과제빵 등 22개 직종에 188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멀미약 '키미테' 기억력 장애 등 부작용

블이는 멀미약 '키미테' 패치제품을 사용한 뒤 환각, 정신착란, 기억력 장애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안전주의보가 발령됐다. 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야외 나들이철과 학생들의 수학여행 시즌, 휴가시즌이 맞물리면서 멀미약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이 제품의 소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14일 "소비자위해감시 시스템(CISS)에 환각, 착란, 기억력 장애 등 키미테 제품의 부작용 사례가 올해에만 13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증상별로 중복응답을 받아본 결과 '환각 및 착란' 13건, '기억력 감퇴' 8건, '어지러움' 3건, 시야·수면·보행 장애 각 2건 등으로 조사됐다. /연남뉴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입법예고

법무부는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개구리 소년 납치살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자 정의에 반해 살인범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며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살인 등 중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현재 살인죄 공소시효는 25년이다. 15년이었다가 2007년 12월부터 늘었

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보낼 계획이다. /연남뉴스. 한기민 총경 사직. 한기민 전남지방경찰청 보안과장이 1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진도 출신으로 목포서장·전남청 정보과장 등을 역임한 한 총경은 내년 정년을 앞두고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물러났으며, 차기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준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아직도 전기 플러그 계속 꽂아두나요. 年 전력낭비 4160억원. 전기면, 가정 대기전력 조사. 우리나라 가정에서 각종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플러그를 꽂아두어 낭비하는 전력이 연간 4160억원 어치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지난해 전국 105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1년 전국 대기전력 실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대기전력(standby power)은 전원을 끈 상태에서 전기제품이 소비하는 전력이다. 가전기가 작동하지 않아도 플러그를 그대로 꽂아두어 소비되는 전력을 뜻하며, 전기를 잡아먹는다는 의미에서 '전기 흡혈귀'라고도 불린다. 전기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가구가 1년에 낭비하는 대기전력은 평균 209kWh에 이

국민권익위원회 (사)반부패국민운동 광주광역시연합 창립기념식 및 반부패궐기대회. 모시는 글. 박길무. 창립추진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사)반부패국민운동 광주광역시연합 창립추진위원장 박길무. 창립기념식 및 반부패궐기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 뜻 깊은 자리에 부디 함께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